

이기주의는 어떻게 이타주의와 만나는가?

— 고대 중국에서 전개된 이타주의 논리에 대하여

이상수

세상에는 완전한 이기주의자도 없고 완전한 이타주의자도 없다. 악명을 날린 이들도 자의 혹은 타의로 공동체를 위해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공동체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평을 듣는 이들도 자신의 이타행(利他行)을 통해 다른 어떤 이기적인 행동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가 이기적인 행동이고, 어디서부터가 이타적인 행동인지 분명하게 경계를 긋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문제는 비단 현대 사회의 주제만은 아니다. 인간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규범이 등장할 때부터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은 사회 규범의 주요 통제 대상이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을 제약하는 소극적인 규범 이외에,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자기희생과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도 함께 등장한다. 이런 규범들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 이런 규범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갈 수 있을까?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서도 공동체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 어떤 규범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백가쟁명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가령 양주(楊朱)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라(貴己)”는 일견 이기주의적으로 보이는 명제를 제시했고, 묵자(墨翟, 묵자)은 “세상 사람들을 두루 사랑하라(兼愛)”는 이타주의적인 명제를 제시했다.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전개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논의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자.

이상수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철학과 대학원에서 『주역(周易)』 연구로 석사를, 제자백가의 논리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자, 노자, 장자, 손자, 순자, 한비자 등 제자백가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강의와 글쓰기를 하고 있으며, 고전의 현대적인 번역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효, 김만중, 정약용 등 한국철학 연구에 빠져 있다. 저서에 『아큐를 위한 변명』, 『한비자, 권력의 기술』, 『바보새 이야기』, 『오랑캐로 사는 즐거움』 등이 있다.

주요 논의 내용

- 상대적·절대적 의미에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 공자(孔子): 수기안인(修己安人)의 경세가(經世家)적 이타행
- 노자(老子): 하늘을 본받는다(法天) 구도자적 이타행
- 묵자(墨子): 겸애(兼愛)의 사회변혁가적 이타행
- 양주(楊朱)와 장자(莊子): 경물중생(輕物重生)의 모나드적 이타행
- 이타행과 자기의 고양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기에 활동한 제자백가들의 이타주의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경세가적 이타행, 구도자적 이타행, 사회변혁가적 이타행, 모나드적 이타행 등으로 정리해보았다.

이런 유형화는 오늘날 이타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이타행을 살펴보고,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결론으로 얻을 수 있다.

첫째, 행위 주체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이타행은 없다. 아무리 행위 주체가 아무런 보상을 원하지 않고 행하는 이타행이라 하더라도, 이타행은 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쁨, 보람, 명예 등의 보상을 돌려준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의 최선은 이타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행위 주체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타행은 없다. 유가의 경세가적 이타행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기를 닦아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노자의 구도자적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늘의 길’을 본받을 수 있는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묵자의 사회변혁적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자기희생의 정신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양주의 모나드적 이타행 또한 ‘경물중생’이라는 삶의 태도를 철저히 닦아야 한다. 요컨대,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이타행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로 귀결된다. 하나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선을 다해 이타적인 행위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고양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이타적인 행위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일시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